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식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우리 교회는 25개 교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전 3:11) 각 교구는 단순히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구는 복음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이듯 25개 교구도 일부 직분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중심의 교구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교구가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역동해야 합니다. 각 교구의 역동성을 가장 세심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연마하는 기초 훈련장입니다. (골 2:19) 세속에 물든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며 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구역예배야말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구역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구역장들은 수요일예배 후에 있는 구역장 영성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음전도자로 매우 거듭나야 합니다. 구역원들도 일상이 분주하겠지만 구역예배를 우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구역예배에 모든 남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최근 각 구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태신자 초청을 통하여 구역예배는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각 구역원들은 더욱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기도하고 새가족을 초청하여 모이는 구역을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구역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될 때 교구는 역동합니다. (렘 37:17) 불령과 원망을 토로하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 보혈로 뜨거워지는 구역예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롬 6:5) 이번 주 구역예배는 언제입니까?

***오늘, 찬양예배 시 제2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릴)**

***다음 주일(5월 4일), 제4차 성찬식(1~5부예배 시)**

5월 교회 일정

- 4월(주) 제4차 성찬식(1~5부예배 시), 제6차 CMTC 훈련1(찬양예배 후)
- 11월(주) 오순절 성경강림주일, 이단반·어머니주일(가족연립예배 2·3부)
제8차 CMTC 훈련2(찬양예배 후)
- 14월(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일예배 후, 여전도회)
정기당회(수요일예배 후)
- 17월(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 24월(토) CMTC 직무훈련(14:00)

말씀과 삶 ㉔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마가복음 16:15)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마 16:16)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는 신자들이 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온 세계를 향하여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신자들의 시선은 온 세계를 향하여야 한다. 온 세계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신자들은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는 신자들이 해야 할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선교를 특별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 교회를 자랑하는 한 방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교회에 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을 때에는 가차 없이 선교를 중단해 버리고 있다.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 1:4) 예수님이 천국의 길, 진리, 생명이시다.(요 14:6)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마 28:18~20)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땅 열방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행 1:8) "온 세계는 발리다!"(마 13:38) 선교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다. 온 세계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나아가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이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사라진 선교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지의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제공한 뒤에 복음을 전할 거라 말한다. 그러나 끝내 복음은 흐려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교는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것들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고전 15:3~4) 하나님께 보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람을 얻었도다"(골 1:13~14) 복음이 단순하기에 선교도 단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신자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신자로 거듭난다.(고후 5:17) 보혈로 거듭난 참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자!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요 4:7) 또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 많은 여인에게도 복음의 은총은 전해졌다.(눅 7:47~48) 또한 복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다.(마 19:13~14) 특히 이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여 전해졌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성령님은 광야로 갈 것을 명하셨고, 빌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행 8:27)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틈만 있으면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시선은 온 세계를 향하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선교는 신자들의 삶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남녀노소,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명이 신자인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WHY REMEMBER?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Communion is a time for believers to remember again the purpose of Christ's body and blood. The bread of Communion reminds us of Christ's broken body and the cup of Communion reminds us of Christ's precious blood shed on the cross for our sin. Some Christians come to Communion weekly, others monthly, quarterly, and even annually. Whenever we return we are to remember. Jesus Christ specifically asks us to "do this" remembering, ".....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Why does Jesus Christ want us to keep returning to remember?

Remembering reminds us of Christ's redemption. The bread and the cup symbolize Christ's death, which tells the story of redemption. Redemption is the act of buying back something or someone previously sold. We have been sold in the slave market of sin. Jesus died to buy us back and set us free. His death on a cross has the power to save humanity from its corrupted state and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Romans 3:23~25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whom God displayed publicly as a propitiation in His blood through faith. This wa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the forbearance of God He passed over the sins previously committed." When the Son of God, Jesus Christ, took the cross, His last words before giving up His spirit were, "It is finished!" (Jn. 19:30) The price for our redemption from sin was paid in full by our Lord's death.

Remembering reminds us of Christ's resurrection. When the Jews asked Jesus for a sign, Jesus tol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Jn. 2:19) "The Jews then said, 'It took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will You raise it up in three days?' But 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So when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which Jesus had spoken." (Jn. 2:20~22)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roves His deity. 1 Corinthians 15:20~22 says,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For since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also cam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Without the resurrection there is no need for Communion. Without the resurrection there is no need for the church. Without the resurrection there is no hope of heaven. Christ's resurrection is the guarantee of our salvation.

Remembering reminds us of Christ's return. Today's Bible verse say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He is coming! We receive communion until Christ's return. The thought of His second coming should thrill our souls. Jesus, whose death we proclaim, is coming back again to take us to our heavenly home, which He has prepared special for each believer. Communion should fill us with expectation. The hope of Christ's return prepares us for Communion with God,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n. 3:3)

What will you remember this Communion? Will your remembering remind you to live in light of the cross? Will your remembering move you to prepare for Christ's return? Do you actually feel like Christ's precious blood has cleansed your dirty soul? Will you look forward to the next time we meet to remember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return? Please, come to the Lord's Table today and remember Him well. Amen. 🙏

왜 기념해야 하는가?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김성관 목사

성찬식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의 떡은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을,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시켜 줍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주기가 다른데 매주, 매달, 또는 분기별로, 어떤 곳은 일 년에 한 번 드리기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3~25절)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구속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되새깁니다. 성찬식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말해 줍니다. 구속이란 이미 팔린 물건이나 사람을 값을 치루고 다시 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시장에 팔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타락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23~25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신 것입니다.

부활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새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

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20~22)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20~22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성찬식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재림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되새깁니다. 오늘들의 본문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늘에 특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찬식은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십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씻을 수 없던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기대하십니까? 이제 주의 만찬에 나아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말씀과 기도 ④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마가복음 14:34~38)

모든 사람 관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한가지로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일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다.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기도는 왜 해야 하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있다. (마 6:9)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기도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야 한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몹시 피곤하셨고 지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셨다. (막 1:35) 삶과 선교의 현장 등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약 5:16) 죄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행 4:31)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기도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응답하신 것이다. (마 7:8 ; 요 14:14)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 (히 6:12)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피조물의 사람을 깨닫게 된다. (막 11:25) 십자가의 은총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는 삶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마 18:35) 속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전적인 복종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간구하

는 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는 위대한 세 기도가 있다. 우선 모세의 기도이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백성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기를 소망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가 비껴가기를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피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였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은 달랐다. (고후 12:7~9) 이처럼 우리의 간구와 주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더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갈 5:16)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감사하며 기도하자

인내하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살전 5:16~18)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이다" (시 47:1)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마 18:19) 단지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 55:8)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간구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잠 3:5) 사랑과 은총 그리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참 생명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시 91:9~11) 한나도 오직 하나님께만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였다. (삼상 1:27~28)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한다. (사 65:24)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총의 자녀 된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 순종, 감사, 기대가 넘칠 수밖에 없다. 아멘.

김성곤 위임목사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건축위원회



김인경(장로, 건축위원장)

여러 부분들을 살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특히 3년 전, 본당 외벽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급히 정밀한 안전 구조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세워 현재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

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를 통하여 낙석방지과 방수에 탁월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당에 연결된 옥상 11개소 방수와 종탑 보수공사, 외벽 전체 세척까지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현기도원 한쪽 편에 수양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수양관의 일 부인 대형 집회장(체육시설)과 숙소가 한층 건축 중이고, 6월 경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현기도원의 다니엘관과 에스더관 내부를 완전히 콘크리트로 개조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 5월 말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시설물을 분투하고 아름답게 유지 보존 하도록 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과 실행위원들은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경침이나 지식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건축위원회가 인간의 뜻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을 삼을 주께 받을 줄이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골 3:23~25)

‘내가’ 아닌 ‘주님’

10년 전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참여한 성찬식을 기억한다.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기억한다. 놀랍도록 부어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러나 성교를 준비하는 동안 나의 가슴은 공허함과 불안이 가득한 채로 단단히 잠겨져 있었다. 단기성교를 나의 기가에는 나의 신앙이 너무 약했다. 성교 준비과정 동안 계속하여 자기부인에 관하여 훈련을 받았고, 뜨겁게 기도도 했다. 성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성교를 준비하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은 철저하게 괴리되었다. 모임을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미 세상의 것이었다. 짧은 열기를 주체하지 못했다. 친구들과 즐겨야 했고,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너무도 쉽게 빠져버리는 육신의 정욕이었다.

이렇게 나는 완전한 자기부인을 하지 못한 채 성교지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나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언어연속도 충분히 했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했다. 또한 내에게는 성교경험도 있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의 고백은 오래 가지 못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 돌아오는 말은 “모르겠어요!”라는 대답뿐이었다.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음은 위축되어 갔고, 그들이 나를 추구하는 것만 같았다. 얼얼해진 마음 때문에 전도지도 쉽게 내어 보일 수 없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를 거듭함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성교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구나.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번 성교는 실패했어. 내 안에 사탄의 목소리만이 크게 메아리쳤다. 정말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평가회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러 주셨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6~18) 주님께서는 이런 성교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부인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내가 무언가 하려 했을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셨다. 나는 아무 것도 전할 수 없는 자였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문장을 허락하셨다.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였다.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고, 나는 그저 전도지도 내어 보여가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었다.

이전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비록 순간순간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회생이 다시금 기쁨이 흘러넘치는 시와와 같이 터져 나오게 하심을 믿음으로 행복하다. 나는 앞으로 성령의 온전한 분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갈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정유진(대학부 8팀)

신실한 사랑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밭으로 보내 주소서, 보내 주소서. 제단 숲불 내 입술에 데니 어찌 주저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찬 495장) 순간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호흡하기를,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호흡하기를, 그렇게 숨쉬며 사역하기를 간구하며 준비했던 단기성교였다. 그러나 실제 나의 모습은 정반대였다. 깨어서 기도도 하지 않았다.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였다.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위해 증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오랜 기다림으로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으름과 관심 없음과 사랑 없음을 깨뜨리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은혜를 채워 주셨다.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 건넌 수 없는 사랑의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 세상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통림되는 사랑의 그 나라! 아멘, 주에 수배,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경은(대학부 6팀)

“주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24교구 2지역팀

※ 짧은 전도연어만이라도 한 말씀 한 말씀 전하고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말로 열정기도를 해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조금은 멋진 것은 그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나 자신이 더욱 은혜가 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내는 내 입술에서 “주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보가 되어 주님의 크나큰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최정순 집사)

※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내 안에는 죄로 가득하여 남다른 회개의 열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이곳에 와서 그 큰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이웃 사람들을 보니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사를 입었는지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정화 집사)

※ 주님이 보실 때에 나의 영혼이 앙상한 뼈처럼 형편없이 메말라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며 혼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의식의 뜻을 벗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성삼 권사)

※ 어떻게 이런 일이? 25개 문장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현지인들이 말씀을 듣고 열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최영득 권사)

※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

을 이루시는 본문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렬한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리어 주시고, 피곤할 때에는 휴식할 수 있는 처소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해 평가회 시간에 “자신의 부족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더러는 거절당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종철 안수집사)

※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정기도까지 받고 “아멘.” 하며 옆에 누워 있는 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얼굴은 오랜 병으로 복수가 차올라 차마 바라볼 수 없었으나 눈빛만은 순진하고 갈급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 열정기도를 하였고, 부족한 나는 아무 공포 없었지만 그 때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양승자 권사)

※ 사역기간 동안 짧은 언어로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지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중재 역할을 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성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방소애 권사)

※ 섬치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찬양소리를 들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머지않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도 지금처럼 찬송이 울려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김경희 안수집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4일(월) ~ 4월 22일(화)	19교구 3지역	유승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을 영접하기 전, 저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을 뜨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입흑 속에서 하루하루 먹이를 찾아 헤매는 무지렁이 벌레 같은 자였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정에서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아버지 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기르던 돼지와 소 등 모든 가족들이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형님은 정신병에 걸려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며 사고를 내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접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돼지처럼 앞에서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심한 세상과 하늘을 원망하면서 술과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집 재산을 다 팔아 바쳐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그냥 교회에 나가자면 하면 만사가 다 풀린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혹시나 ‘형님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형님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별로 좋은 일도 없자 저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형님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깨달았고, 우리 가족도 변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날, 목사님은 저에게 주님이 뜻이 있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니 세상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없이 구하기만 하면서 4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응답이 없자 새벽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또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가 싶었는데 그때에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흑과 백을 정확히 가려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술 한 잔도 일에 대치 못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술을 먹고 싶게 만드는 어둠의 영을 결박해 주세요!” 저의 나쁜 버릇을 주님께 고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자리에서도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삶 같은 것은 있는 지 오래되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성해(성도, 청년2부)

한없이 부족한 나를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2007년에 고등부 교사로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어서 1년간은 신입부에서 학생들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반을 맡아 학생들을 양육하고 싶은 바람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반을 맡아 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반을 맡아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모든 것을 챙겨주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세워 주신 은혜가 감당치 못할 만큼 많았으나 나의 약점과 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자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책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씨름하였습니까. 지식으로 깨달으려 하였으나 진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보여 주세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러자 하나님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던지! 결국 교사는 나의 지식이나 실력,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나 같이 부족한 자를 교사로 세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뒤에 나의 허물을 감추시고 부활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학생들로부터 먼저 배우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는 교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입니다. 아직도 학생들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반 공부를 마치고 나면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좀더 나은 교사가 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믿어 어찌나 하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교사로 세우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바라며 용기를 얻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교사로 세워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매주일 고등부교사 명찰을 가슴에 달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임혜경(교사, 고등부)

나의 교만을 깨뜨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군 복무를 전후하여 신앙의 방랑기를 보냈던 나는 위임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해 어느 성전예배 때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시작일뿐이었다. 당시 증권회사에 다니던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달도 많이 내고 회개도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런 한편 좋은 차와 좋은 집, 그리고 다른 이로부터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벌기도 했던 나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위임을 받아 투자를 대행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투자 수익을 내던 것도 잠시, 어느새 급격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도 나는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투자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 결과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어났고 있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져 갈 무렵, 나는 증권회사를 그만 두고 주위의 몇 사람과 뽕차회를 세웠다. 성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해 보자며 새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 회사도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갖가지 일을 해 보았으나 하는 일마다 소득이 없었고, 증권회사 때부터 누적이된 손실과 이런저런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다. 그 사이 결혼도 했으나 내게는 혼인의 달콤함만 없었다.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믿게 해 보려는 순간 나는 계획은 끝판 무리지고 말았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주님은 나에게 금요찬양집회를 참석할 마음을 주셨다. 고통의 때에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며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 2,000년 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이스라엘 청년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신가? 또 그가 진정 하나님이신가?

등등 근본적인 질문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계속 금요찬양집회를 갈망하였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셨음을, 예수님이 가진 길과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그 길은 내 힘으로 절대 갈 수 없으며, 내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어야 하는 이유도 알게 해 주셨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나에게 고통의 삶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비뚤한 말 구유에 나치고 낮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금슬과 지위를 베푸시기 전작 본인은 이 땅에서 머리 돌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은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교만을 깨뜨리셨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겼을 때 주님은 한 걸음씩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셨다. 내가 피해를 주었던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삶의 역경 중에도 내 속에서는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였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 선교의 사랑까지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는 그 날까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다.

김영호(집사, 23교구)

교회탐방 타아부

아이를 맡기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세요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큰 일이다. 끊임없이 보내는 아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다. 타아부가 있기 때문이다.

타아부는?

타아부는 선교관 1층에 있습니다. 주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 아기를 둔 부모님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정자 전도사, 지도)

매주 일 100여명의 교사들이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회(08:30, 10:10)를 갖습니다. 매주일과 금요찬양집회에 적게는 100여명 많은 때는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비디오텍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유상태 전도사, 부장)

많은 어린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교사들이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김종기 안수집사, 부장)

타아부를 이용하려면?

선교관 1층 타아부실에서는 주일예배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찬양예배가 끝나는 6시10분까지 아이들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금요찬양집회 시에는 저녁 7시부터 9시40분까지입니다. (조동일 집사)

타아부는 영아부터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타아부에 맡겨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1:1로 아기를 맡아 돌보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은숙 권사)

아이와 부모님들도 타아부 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본당에서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해도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짐을 느낍니다. (조성옥 집사)

타아부에서 봉사하면서 드리는 은혜는?

아이들은 "선생님"하면서 뛰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하정훈 집사)

타아부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회 청송입니다. 청송을 열고 각 부서별로 구석구석 쓸고 닦아요.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이며 안 다를 수 없어요. 청송도 정갈하지요. 땅이 나고 들들이요 기쁨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자요. 나침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말영 집사)

우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무 능력도 없고 자각도 없는 부족한 저에게 미래의 청지기인 아이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을 지나들며 울며 보냈던 어린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봉사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 오려려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연로하신 관사님들이 아픈 허리도 있고 다리가 불편하셔도 내 손자손녀처럼 기도하며 앉어주고 안아주며 사랑으로 아기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김영미 집사)

타아부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타아부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지 아세요? 모든 분들께 들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천국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감사히 참로 나와요. 타아부에서 봉사하며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최희은 집사)

금요찬양집회와 주일예배시간에 타아부 봉사를 하면서 개구쟁이 천사들은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듣고 만들거, 그리기를 하면서 장난치고 뛰어 놀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한옥 집사)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아이들이 인제 다칠지 모르기에 예방 차원으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에는 작은 물건이라도 미리 미리 정리하지요. (김재호 안수집사)

100여명의 교사들이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의 일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최종환 집사)

타아부에 아이를 맡기며?

아기들과 같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속직이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알게 모르게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김미영 권사)

100여일 지난 때부터 대략 3년 동안 타아부에 아이를 맡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아이를 전담해서 맡아주시는 관사님(봉사자)이 계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박은미 집사)



아기가 아직 어려서 본당에 들어만 온도 변화가 많아 어려웠는데 타아부에서는 아기와 엄마를 많이 배려해 주는 환경이어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김성연 집사)

저는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기를 맡기고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3살 된 저의 아이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윤지영 집사)

우리 교회 타아부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에서 드리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 환경과 시설 및 1:1 돌봄시스템은 덤이다. 오직 믿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신자의 사랑만이 그득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헌신 3:3)

(전진국)

네 영혼이 주를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총회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지 4년이 되면서 동시에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봉사한 지도 4만 명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동네의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20년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개인의 지식대로 이 세상을 헛되이 살아오다가 서른넷이 되던 늦은 나이에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총회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의 뜻과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이끌리어 총회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으로 묵상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고대 비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뒤에는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업무에 열중하라 모임을 참석하라 과연 우리 교회의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수요2부예배에서 실로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며, 금요찬양집회와 요찬양집회, 주일예배, 구구모임, 주일찬양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라. 너 어려울 때 쉼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라." 이 허를 잡고 쉼 많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피우신 저를 주님께서 구해주셔서 일평생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주님께 받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힘써 진도하며 힘써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주홍규(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48	김성규	12	장년1부 김성혜(12)	672	유미희	3	청년2부
649	김영숙	12	장년2부 김성혜(12)	673	김수진	8	청년1부
650	이희남	6	장년1부 홍 화영(17)	674	문미경	15	청년2부
651	권영숙	18	장년2부 권영숙(14)	675	백만주	9	청년1부 정경희(6)
652	노민숙	13	청년1부 박옥자(13)	676	송영진	18	사망부
653	신지선	23	청년1부 유수영(13)	677	한은희	4	청년2부 박선애(7)
654	김정은	17	장년2부 남혜자(24)	678	백민기	9	소망부 정영희(9)
655	공종숙	11	청년2부 남종숙(17)	679	한은희	3	청년1부 김혜정(4)
656	최민희	17	장년2부 유수영(19)	680	이시호	16	청년2부 김은진(21)
657	김진희	20	청년부 유수영(19)	681	박민희	23	청년1부 김은희(7)
658	조나선	13	유년부 권영자(11)	682	유숙진	1	청년2부 권숙희(11)
659	장우석	3	유년부 임은희(11)	683	김민희	1	청년2부 김숙희(11)
660	김영희	12	장년2부 유수영(15)	684	김현규	1	유치부 김현희(1)
661	최희은	1	장년2부 유수영(17)	685	한영진	1	청년1부 김아름(18)
662	차승연	6	중동3부 문영자(23)	686	조경기	13	청년1부 김희정(13)
663	김갑조	16	장년2부 이영희(16)	687	송은희	1	청년1부 최영조(23)
664	최혜경	9	청년1부 김혜순(15)	688	이영진	12	청년1부 김경호(18)
665	박하리	22	청년1부 손은진(13)	689	황수영	25	외선부 정영희(21)
666	이영숙	24	소망부 박석진(17)	690	박미영	25	외선부 정영희(21)
667	정현진	24	소망부 이은기(17)	691	이정은	2	고등부 정영희(24)
668	전미희	13	청년1부 김현자(13)	692	최영진	3	고등부
669	이혜진	20	청년1부 김소현(11)	693	권한성	10	청년2부 전진국(10)
670	이영진	21	청년1부 최숙희(11)	694	김지영	17	청년1부 정영숙(17)
671	권유미	21	대학부 정영희(11)	695	이영진	17	청년1부 정영희(17)

* 추천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